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단 만들어 패키지 지원”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제도 구상”
‘5극 3특’ 정책에 따라 경제·생활권 구성해 새로운 도시권역 조성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거리에 비례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5극 3특’(5개 권역·3개특별자치도) 정책과 맞물려 권역에 경제·생활권을 구성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을 통한 지방 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교·국방과 관련,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정될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전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합의를 평가했다.

또 검찰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면서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약착같이 막아야 아이에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았다. 예정된 90분을 넘기자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추가 진행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질문을 받겠다’며 회견을 지속해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문답을 이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AI 중심도시 도약” 공식 선언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
AI 산업·시민생활 유기적 접목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대한민국 AI의 심장’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광주 곳곳에 AI 산업과 시민생활을 유기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11일 첨단 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내년부터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일상과 산업 전반을 혁신할 구상을 공개했다.

행사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대학,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는 자율주행 드라이브링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치) 첫 공개, 광주 AI 성과와 2단계 비전 발표, 반도체·AI 기업 21곳과의 광주 유치 업무협

약 체결,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다짐하는 시민 결의 순으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선포식을 기점으로 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 ‘AI 중심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생활 속 체험형 서비스까지 구체화한 연속선상의 계획이다.

국가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병행하고,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해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도 구체화한다. 이날 비전 발표에서는 AI가 시민의 하루 일과에 스며드는 구체적 장면들이 제시됐다.

대표 과제는 AI 공원 놀이터, AI 교통시스템, AI 청소로봇, 24시간 AI 민원비서, AI 민주주의 플랫폼, AI 돌봄과 주치의, 맞춤형 AI 문화콘텐츠, AI 안전보안관 등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 신뢰성, 자원 확보, 시민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국가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2017년부터 AI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지난 5년간 국가 데이터센터·기업·인재라는 3대 생태계를 갖춘 유일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AI 혜택을 체감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반드시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173표 압도적 찬성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 의원은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권 것은 허위 진술뿐”이라며 “인신재판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원조 친운’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야권 내부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복스 -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 ▶ 14·15면

광주 양궁, 김재덕 동·여자 개인전 금·동전 ▶ 18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흠

시카보다 4배* 강한
썩시카™ 진정의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물추출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